

최근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¹⁾ 참여 동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I. 분석 배경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2017)>(관계 부처 합동, 2012.9.25.)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은 기업과 산업계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혁신의 경계를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별 근로자와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기회 제공, 고용 유지 및 더 나은 고용 기회로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이고도 유일한 수단(고혜원 외, 2012)이다. 직업능력개발의 이러한 역할은 고용 환경의 유동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즉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의 고도화 및 새로운 역량 습득이 수시로 요구되고, 전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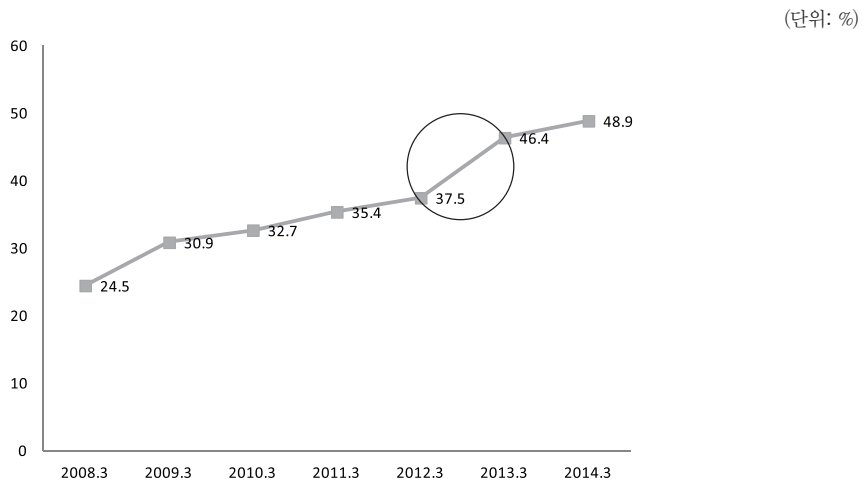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사업주 및 개인 지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참여 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교육훈련의 내용과 형식의 다양화 및 다변화가 이루어졌다(최영섭 외, 201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6년간의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지

1) 본고에서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은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1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08년 24.5%에서 2014년 48.9%로, 지난 6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둘째,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감분을 살펴보면, 2013년 3월의 경우 증가분이 약 9%p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어서 2014년에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 추이(2008~2014년)



주: 교육훈련 참여율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이 글에서는 이 같은 특징에서 출발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6년간의 임금근로자 내 집단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전체적인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세 속에서 집단 간 훈련 참여 격차가 완화되었는지, 혹은 유지, 확대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 제도적인 훈련 사각지대의 존재와 이로 인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저조한 참여와 연령대별 훈련 참여 격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임금근로자 전체의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2013년에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를 인적 속성, 노동시장 지위, 산업·직종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집단이 비약적인 증가를 견인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면서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월(2008년~2014년) 자료이다. 동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하고 있는데 이 문항을 교육훈련 참여율 변수로 이용하였다.

II. 최근 6년간 임금근로자 집단 간 교육훈련 격차는 줄어들었나?

여기에서는 2008~2014년간 임금근로자 전체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각 집단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교육훈련 참여 격차의 추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및 노동시장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자 집단 간의 훈련 참여 격차가 최근 6년간 완화되었는지, 혹은 유지, 확대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본다.

1. 인적 속성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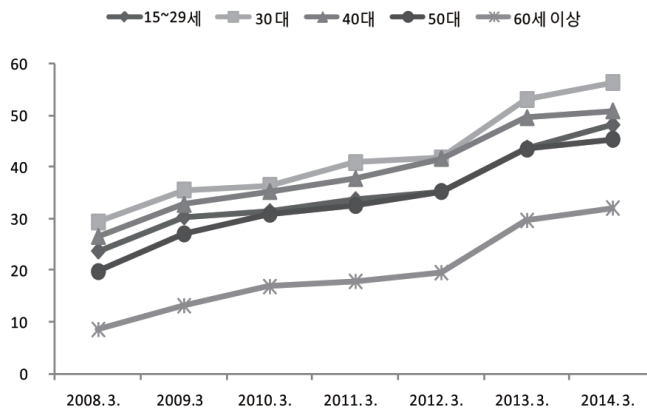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교육훈련 참여율과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난 6년간 교육훈련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남자의 참여율이 여자보다 높은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남녀 근로자의 참여율은 각각 51.0% 46.2%이다. 남녀 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는 2008년에 남자가 4.2%p 높았던 것이 2013년에는 그 차이가 7.5%p로 확대되다가 2014년에 4.8%p로 누그러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성별 격차는 지난 6년간 축소되지 않고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

연령별 추이를 보면 30대와 40대 근로자 집단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패턴을 6년간 유지하고 있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30대와 가장 낮은

60세 이상 근로자 간의 격차 추이를 보면 2008년 20.8%p(30대가 29.3%, 60세 이상이 8.5%)에서 2014년 24.3%p(30대가 56.3%, 60세 이상이 32.0%)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 별 6년간 증가분 역시 30대가 27.0%p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23.5%p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50대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분(25.6%p)이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2.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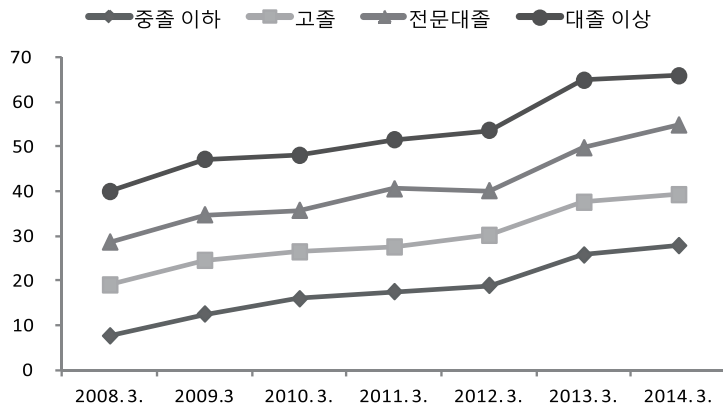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학력별 교육훈련 참여율은 모든 집단에서 지난 6년간 증가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 또한 높은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이 중 대졸 이상 근로자와 중졸 이하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추이를 보면, 2008년에 대졸 이상이 39.9%, 중졸 이하가 7.6%로 그 격차가 32.3%p로 나타났고, 2014년에는 대졸 이상이 65.8%, 중졸 이하가 27.8%로 격차가 38.0%p인 것으로 나타나 6년간 다소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5.7%p 증가). 지난 6년간의 증가분 역시 중졸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2%p로 고졸과는 같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작다. 대졸 이상과 고졸 근로자 간 참여율 격차의 경우 2008년 20.9%p에서 2014년 26.6%p로 격차가 더 벌

어졌고,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근로자 간 경우에는 동 기간 격차가 11.3%p에서 11.0%p로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는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3.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요컨대, 최근 6년간 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교육훈련 참여율은 모든 집단에서 증가하였지만, 집단 간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표 1.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추이(2008~2014년)

(단위: %, %p)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14. 3.	2014-2008
임금근로자 전체		24.5	30.8	32.7	35.4	37.5	46.4	48.9	24.4p
성별	남자	26.3	33.2	34.9	37.5	40.4	49.7	51.0	24.7p
	여자	22.1	27.7	29.7	32.5	33.6	42.2	46.2	24.1p
	남자-여자	4.2p	5.5p	5.2p	5.0p	6.8p	7.5p	4.8p	0.6p
연령	15~29세	23.7	30.3	31.3	33.6	35.2	43.6	48.1	24.4p
	30대	29.3	35.5	36.4	40.8	41.7	53.0	56.3	27.0p
	40대	26.5	32.7	35.2	37.7	41.6	49.5	50.8	24.3p
	50대	19.7	27.0	30.8	32.5	35.2	43.4	45.3	25.6p
	60세 이상	8.5	13.1	16.8	17.8	19.5	29.6	32.0	23.5p
	30대-60세 이상	20.8p	22.4p	19.6p	23.0p	22.2p	23.4p	24.3p	3.5p
학력	중졸 이하	7.6	12.5	15.9	17.5	18.9	25.7	27.8	20.2p
	고졸	19.0	24.5	26.4	27.5	30.1	37.5	39.2	20.2p
	전문대졸	28.6	34.7	35.7	40.5	40.1	49.7	54.8	26.2p
	대졸 이상	39.9	47.1	48.0	51.5	53.6	64.8	65.8	25.9p
	대졸 이상-중졸 이하	32.3p	34.6p	32.1p	34.0p	34.7p	39.1p	38.0p	5.7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2. 노동시장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추이

이어서 임금근로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종사상 지위 간, 재직 사업체 규모 간 및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추이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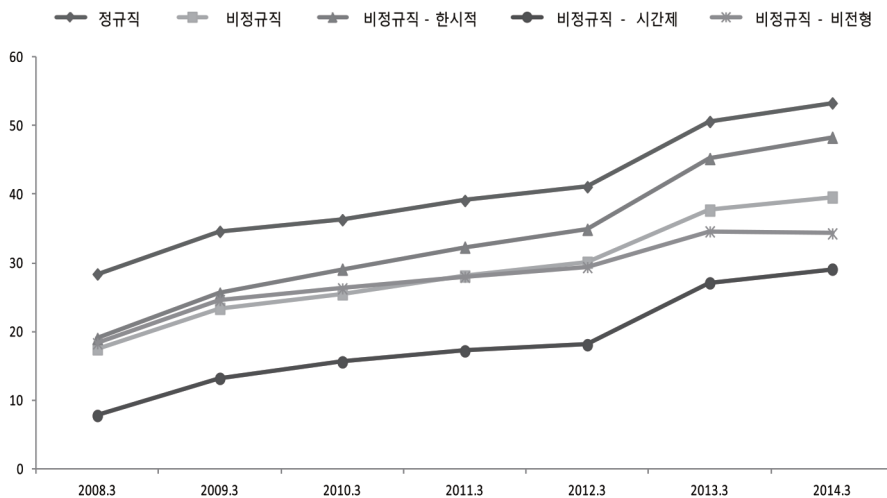
우선, 정규직 여부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2008년에 28.4%이던 참여율이 2014년에는 53.3%로, 지난 6년간 참여율이 2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은 2008년 17.5%이던 참여율이 2014년에는 39.6%로, 6년간 2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2008년에 정규직이 11%p 정도 높게 나타나다가 2013년 이후 그 격차가 13%p 안팎으로 다소 확대되었다. 근로자 전체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급증한 2013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하겠다.

이슈 분석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로 구분²⁾해 살펴보면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한시직 > 비전형 > 시간제). 2014년 기준 한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48.3%, 비전형 근로자는 34.3%, 시간제 근로자는 29.1%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내에서도 교육훈련 참여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제 근로자와 한시직 근로자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11.2%p이던 격차가 2014년에는 19.2%p로 더욱 벌어졌다. 이는 2014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13.7%p)보다 큰 수치다. 요컨대, 비정규직 내에서도 근로 계약 기간 여부, 근로 시간 등의 근로 형태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만큼 상당한 수준이며, 이질적인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정규직 여부별 및 비정규직 내 근로 형태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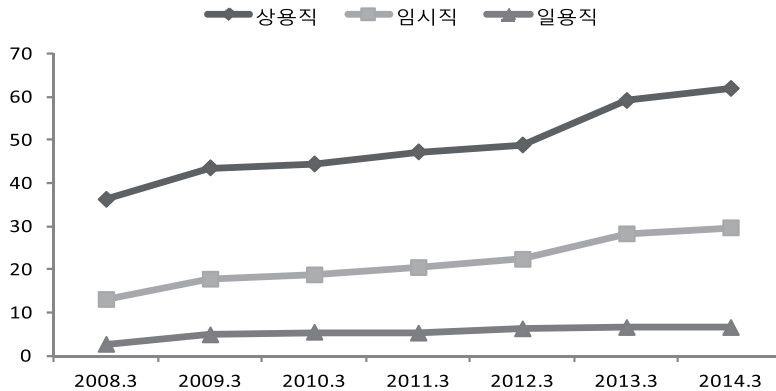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각 연도 3월

-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전형 근로자는 다시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정 내 및 일일 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 간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한시직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및 일일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패턴이 6년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증가분에 있어서도 상용직은 교육훈련 참여율이 25.7%p 증가한 데 반해, 임시직은 16.6%p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3.9%p에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종사상 지위 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역시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상용직과 일용직 간의 참여율 격차 추이는 2008년 33.6%p에서 2014년 55.4%p로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용직과 임시직 간의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역시 2008년 23.2%p에서 2014년 32.3%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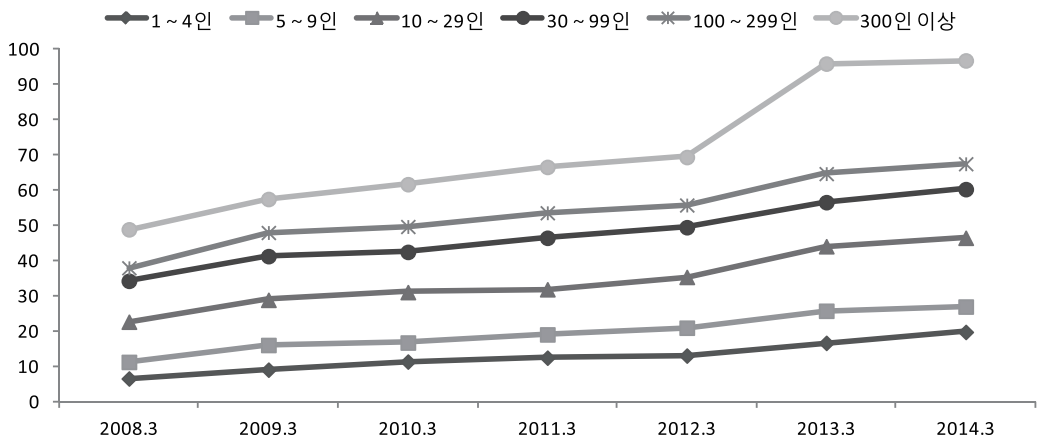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추이를 보면, 무엇보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집단에서 2013년에 비약적인 증가(26.5%p)를 보인 후 1년간 96~97%에 달하는 교육훈련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6년간의 증가분이 47.9%p로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1~4인 및 5~9인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2008년에 각각 6.7%, 11.4%, 2014년에 각각 19.9%, 27.1%로 저조하고 6년간의 증가분 역시 각각 13.2%p, 15.7%p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참여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들과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 간 교육훈련 참

여을 격차는 2008년 42.3%p에서 2014년 77.0%p로 크게 벌어졌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체 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6. 임금근로자의 재직 사업체 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를 보면, 지난 6년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2008년 29.4%에서 2014년 55.1%로 25.7%p 증가한 데 반해,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에 18.5%에서 22.8%로 불과 4.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참여율 격차는 2008~2009년에 11%p, 2010~2012년에 23%p 내외, 2013~2014년에 30%p 이상으로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가입자가 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표 2.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2008~2014년)

(단위: %, %p)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2014 -2008
임금근로자 전체		24.5	30.9	32.7	35.4	37.5	46.4	48.9	24.4p
정규직 여부	정규직	28.4	34.6	36.3	39.1	41.1	50.6	53.3	24.9p
	비정규직*	17.5	23.4	25.5	28.1	30.1	37.7	39.6	22.1p
	- 한시적	19.0	25.6	29.1	32.3	34.9	45.2	48.3	29.3p
	- 시간제	7.8	13.2	15.6	17.2	18.1	27.1	29.1	21.3p
	- 비전형	18.3	24.6	26.3	28.0	29.4	34.6	34.3	16.0p
	- 파견	29.8	38.5	30.2	38.0	36.4	44.6	50.8	21.0p
	- 용역	14.6	22.4	26.3	26.7	30.1	36.0	33.2	18.6p
	정규직- 비정규직	10.9p	11.2p	10.8p	11.0p	11.0p	12.9p	13.7p	2.8p
종사상 지위	상용직	36.2	43.5	44.4	47.2	48.8	59.1	61.9	25.7p
	임시직	13.0	17.7	18.7	20.4	22.3	28.2	29.6	16.6p
	일용직	2.6	4.8	5.4	5.2	6.2	6.5	6.5	3.9p
	상용직- 일용직	33.6p	38.7p	39.0p	42.0p	42.6p	52.6p	55.4p	21.8p
사업체 규모	1~4인	6.7	9.2	11.5	12.6	13.2	16.8	19.9	13.2p
	5~9인	11.4	16.2	16.9	19.2	21.1	25.9	27.1	15.7p
	10~29인	22.8	29.0	31.2	32.0	35.5	44.2	46.6	23.8p
	30~99인	34.4	41.4	42.6	46.6	49.6	56.7	60.4	26.0p
	100~299인	38.1	48.1	49.8	53.7	55.9	64.8	67.6	29.5p
	300인 이상	49.0	57.6	61.8	66.7	69.5	96.0	96.9	47.9p
	300인 이상 -1~4인	42.3p	48.4p	50.3p	54.1p	56.3p	79.2p	77.0p	34.7p
고용 보험 가입	가입	29.4	35.8	36.4	39.7	41.5	52.2	55.1	25.7p
	미가입	18.5	24.0	15.4	16.2	17.6	21.8	22.8	4.3p
	가입 제외	-	-	79.3	82.3	85.4	96.4	96.4	-
	가입-미가입	10.9p	11.8p	21.0p	23.5p	23.9p	30.4p	32.3p	21.4p

주: *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전형 근로자는 다시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정 내 및 일일 근로자로 구분됨.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 간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이 장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지위별로 구분해 최근 6년간의 각 집단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참여율 격차 추이를 파악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6년간 모든 근로자 집단에서 교육훈련 참여율은 증가하였으나 학력별, 정규직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근로자 간의 교육훈련 참여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체 규모에 따른 훈련 참여 격차, 그중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4인 이하의 영세업체 근로자 간의 격차가 2008년 42.3%p에서 2014년 77.0%p로 극적으로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만큼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한시적 및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간의 격차 역시 상당한 수준이며, 내부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2013년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는 누가 견인했는가?

앞서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집단별 증가폭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은 집단에서 증가폭 역시 크게 나타나 집단 간의 격차는 유지 혹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교육훈련 참여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2013년(8.9%p 증가)에 이 증가가 주로 어떠한 집단에 의해 견인되었는지를 탐색하고, 그 결과가 앞서 살펴본 교육훈련 참여 격차 추이와 맞물려 있는 것인지, 혹은 그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의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지위, 산업·직종별 교육훈련 참여율과 증감 현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OLS 분석을 실시하여 임금근로자 중 어느 집단에서 전년 대비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1. 임금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 현황(2012~2013년)

2013년 기준, 임금근로자 전체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율은 46.4%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대비 8.9%p 증가한 것으로, 1년 사이에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2012년 대비 6.8%p~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2012년 대비 증가분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집단은 남자(9.3%p), 30대(11.3%p)와 60세 이상(10.1%p), 전문대졸(9.6%p)과 대졸 이상(11.2%p)의 근로자 집단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전년 대비 증가분은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교육훈련 참여율 현황(2012~2013년)

(단위: %, %p)

		2012.3	2013. 3	2013-2012
임금근로자 전체		37.5	46.4	8.9p
성별	남자	40.4	49.7	9.3p
	여자	33.6	42.2	8.6p
연령	15~29세	35.2	43.6	8.4p
	30대	41.7	53.0	11.3p
	40대	41.6	49.5	7.9p
	50대	35.2	43.4	8.2p
	60세 이상	19.5	29.6	10.1p
학력	중졸 이하	18.9	25.7	6.8p
	고졸	30.1	37.5	7.4p
	전문대졸	40.1	49.7	9.6p
	대졸 이상	53.6	64.8	11.2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다음으로 노동시장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정규직 여부별로는 2013년 기준 정규직의 참여율이 50.6%, 비정규직은 37.7%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는 각각 44.6%,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분 역시 정규직(9.5%p)이 비정규직(7.6%p)에 비해 크고 평균 증가분을 웃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59.1%로 임시직(28.2%)과 일용직(6.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분은 상용직(10.3%p)이 두 집단보다 상당히 높고 평균 증가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직의 경우 증가분이 0.3%p에 불과해 여타 집단과는 달리 교육훈련 참여율에 있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교육훈련 참여율이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참여율이 단연 두드러진다. 2013년 기준 이들의 참여율은 96.0%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증가분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2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규모에 비해 가장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한 여타 규모의 증가분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52.2%로 미가입 근로자(21.8%)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년 대비 증가분 역시 가입 근로자(10.7%p)가 미가입 근로자(4.2%p)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속 기간별 교육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근속 기간이 길수록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아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참여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분의 경우 근속 기간이 2~10년 미만(9.3%p), 10년 이상(11.1%p)인 집단이 평균 증가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집단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별 교육훈련 참여율 현황(2012~2013년)

(단위: %, %p)

		2012.3	2013. 3	2013-2012
임금근로자 전체		37.5	46.4	8.9p
정규직 여부	정규직	41.1	50.6	9.5p
	비정규직	30.1	37.7	7.6p
	-파견	36.4	44.6	8.2p
	-용역	30.1	36.0	5.9p
종사상 지위	상용직	48.8	59.1	10.3p
	임시직	22.3	28.2	5.9p
	일용직	6.2	6.5	0.3p
사업체 규모	1~4인	13.2	16.8	3.6p
	5~9인	21.1	25.9	4.8p
	10~29인	35.5	44.2	8.7p
	30~99인	49.6	56.7	7.1p
	100~299인	55.9	64.8	8.9p
	300인 이상	69.5	96.0	26.5p
고용 보험 가입	가입	41.5	52.2	10.7p
	미가입	17.6	21.8	4.2p
	가입 제외	85.4	96.4	11.0p
근속 기간	1년 미만	23.4	29.9	6.5p
	1~2년 미만	30.3	37.8	7.5p
	2~10년 미만	41.1	50.4	9.3p
	10년 이상	61.2	72.3	11.1p

주: 고용보험 가입 제외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의 경우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이어서, 산업별 교육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2.1%), 금융 및 보험업(79.1%), 교육 서비스업(69.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0.3%)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분의 경우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근로자의 증가분이 17.9%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14.4%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3%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보건, 교육,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년간 교육훈련 참여도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5. 산업별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2012~2013년)

(단위: %, %p)

	2012.3	2013. 3	2013-2012
임금근로자 전체	37.5	46.4	8.9p
농업, 임업 및 어업	7.6	18.9	11.3p
제조업	32.9	44.1	11.2p
건설업	19.0	24.2	5.2p
도매 및 소매업	23.3	27.5	4.2p
운수업	49.8	58.9	9.1p
숙박 및 음식점업	13.2	16.3	3.1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4	55.4	9.0p
금융 및 보험업	68.5	79.1	10.6p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1	28.5	6.4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5	57.3	9.8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5	38.2	6.7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4.2	92.1	17.9p
교육 서비스업	55.3	69.7	14.4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8.0	60.3	12.3p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5	31.0	1.5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5	33.6	5.2p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5	2.6	0.1p

주: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표본 수가 크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직종별 교육훈련 참여율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1.7%), 관리자(57.6%), 사무 종사자(56.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분의 경우에도 이 네 직종의 근로자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가 각각 11.8%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9.8%p),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9.6%p)등의 순이다.

표 6. 직종별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2012~2013년)

(단위: %, %p)

	2012.3	2013.3	2013-2012
임금근로자 전체	37.5	46.4	8.9p
관리자	45.8	57.6	11.8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9	61.7	11.8p
사무 종사자	46.6	56.4	9.8p
서비스 종사자	32.7	39.2	6.5p
판매 종사자	32.2	36.9	4.7p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3	32.5	8.2p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0.1	49.7	9.6p
단순노무 종사자	17.7	24.1	6.5p

주: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는 표본 수가 크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은 남자, 30대, 고학력, 정규직, 상용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집단에서 높았고,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종별로는 전문가, 관리자, 사무 종사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2~2013년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분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훈련 참여율을 나타낸 집단에서 증가분 역시 크게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근로자 집단에서 크게 증가해 이들이 2013년의 비약적인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²⁾

2. 임금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 순증감 OLS 분석(2012~2013년)

1절에서는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을 살펴봄으로써 2013년의 비약적인 참여율 증가를 어떠한 집단에서 견인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지위

2)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였다. 2013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전체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전년 동월 대비 9.7%p 증가하였고, 그중 30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의 증가분이 25.2%p로 가장 비약적이었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16.1%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p, 교육서비스업 14.2%p로 나타났다.

등의 특성과 또한 연도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에 근거한 일차적 추측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을 통제하여 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의 순증가분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훈련 참여율의 비약적인 증가가 어느 집단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통제 변수로는 앞서 제시한 집단별 특성³⁾과 연도 더미를 포함한다. 연도 더미는 노동시장 상황과 같이 근로자 집단별 특성과 무관하게 2013년에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다. 독립변수는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지위, 산업·직종 등의 각 요인과 연도 더미 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간의 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 순증가분을 살펴본다.

분석 자료는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자료를 접합(pooling)한 것이고, 최소자승법(OLS)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추려서 제시하고자 한다.⁴⁾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2012년~2013년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집단은 60세 이상 근로자 집단과 10~2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집단,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근로자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을 2012년 대비 5.0%p 증가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29인 및 100~299인 사업체 근로자 집단에서 각각 3.5%p 증가시켰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앞서 추측하였듯이 교육훈련 참여율을 21.4%p로 대폭 상승시켰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을 2012년 대비 3.4%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참여율을 8.4%p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앞서의 집단별 현황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3) 종사상 지위 및 근속기간의 경우 각각 사업체 규모와 정규직 여부와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통제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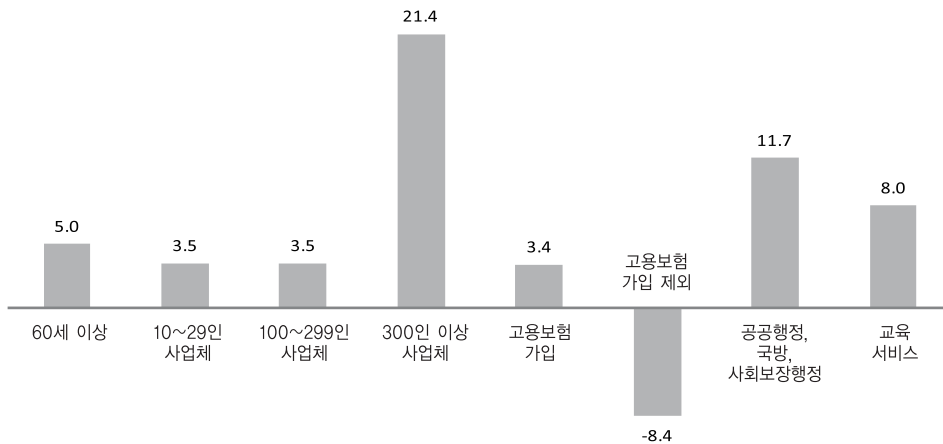
4)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와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근로자가 11.7%p, 교육서비스업 근로자가 8.0%p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2012~2013년의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율의 비약적 증가를 견인한 집단은 위와 같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집단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근로자 집단이 참여율 제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이는 앞 장에서 확인한 근로자 집단 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 현황과 맞물려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임금근로자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 순증감분(2012.3~2013.3)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2년~2013년 3월

IV. 결론 및 시사점

이 글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최근 6년간의 교육훈련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다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집단에서 교육훈련 참여율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집단별로 상이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은 집단에서 참여율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 집단 간 교육훈련 참여율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 또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와의 참여율 격차가 6년 사이 극적으로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훈련 참여율은, 특히 2013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분야 근로자 집단이 이러한 증가를 크게 견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 집단 간 훈련 기회의 격차 해소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사회통합의 엔진’으로서 직업능력개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 일용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2014년 현재 6.5%로 여타 집단보다 상당히 저조하며, 지난 6년간의 증가분도 3.9%p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잦은 노동시장 유출입으로 생계 유지와 구직 활동에 급급하여 훈련 참여 시간과 비용 확보는 물론이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탐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유형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훈련 참여율 격차에 대해 주되게 주목해 왔으나, 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내부에서도 유형별로 교육훈련 참여율이 불균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13.7%p)보다 비정규직 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간 격차(19.2%p)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유형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요구된다. 분석 결과, 근로자 내 교육훈련 참여 격차에 있어 사업체 규모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체 규모 간 훈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96.9%(2014년 3월)로 거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넷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재직자 훈련이 고용보험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8년 55.6%에서 2014년 6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월). 하지만 임시직(28.0%)이나 일용직(4.6%) 등 교육훈련 취약 집단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3월).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지난 6년간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분이 4.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과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재직자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체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사각지대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낮은 교육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가령,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고용보험 가입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훈련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2.9.25.),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2017)>

고혜원 외(2012),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양정승, 김유미(2014), 마이스터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 2014 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최영섭 외(2014), 2014년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이슈, THE HRD REVIEW 17권 1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8~2014년 3월)

부록

2012.3 ~2013.3 근로자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 요인 OLS 분석

1. 변수 및 분석 모형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시장 내 지위, 종사 산업·직종 등 각 요인과 연도 더미 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독립변수로 하여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간의 근로자 내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 증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아래 수식의 β_3)와 추정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통해 집단별 교육훈련 참여율 순증가분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다. 종속 변수는 교육훈련 참여 여부이다. 통제 변수는 상기의 집단별 요인1과 연도 더미 변수이다. 연도 더미 변수의 경우 2013년에 앞서 제시한 집단별 요인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즉, 특정 연도의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Y_{it} = \alpha + \beta_1 T_{2013} + \beta_2 X_{it} + \beta_3 T_{2013} X_{it} + \varepsilon_{it}$$

Y_{it}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여부

T_{2013} : 연도 더미(2013년)

X_{it} : t년도 근로자 i의 특성(성, 연령대, 학력, 정규직 여부, 재직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 종사 산업 및 직업의 더미 변수)

ε_{it} : 오차항

분석 자료는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자료를 접합(pooling)한 자료이고, 최소자승법(OLS)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모형으로 프로빗 추정이나 로짓 추정이 아닌 OLS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종속 변수가 교육훈련 참여 여부로 이항 변수이므로 프로빗이나 로짓 추정과 같은 비선형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를 교차 효과(interaction effect)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양정승·김유미, 2014). 이런 이유로 종속 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대다수의 분석에서 선형 모형으로 추정한다.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부표 1>과 같다. 우선, 통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자, 고학력, 대규모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이 교육훈련 참여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집단별 참여율 추이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30대가 20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정규직 여부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 단순히 정규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

이슈 분석

라 기업체 규모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참여율 추이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교육훈련 참여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변수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3년 연도 터미의 경우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집단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집단과 10~2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집단,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근로자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을 전년 동월 대비 5%p 증가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29인 이하와 100~299인 이하 사업체 재직 근로자 집단에서 교육훈련 참여율을 4%p 증가시켰고, 30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의 경우 앞서 추측하였듯이 교육훈련 참여율을 21%p로 대폭 상승시켰다.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율을 전년 동월 대비 3%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참여율을 8%p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앞서 집단별 현황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근로자 집단에서 12%p, 교육서비스업 근로자 집단에서 8%p 제고했다.

부표 1. 2012.3월 ~ 2013.3월 임금근로자 교육훈련 참여율 증가 요인 OLS 분석

종속변수: 교육훈련 참여 여부					
통제 변수		Coef.	독립 변수		Coef.
연도 터미	2013	0,03			
성	남자	0,03***	성*연도 터미	남자	0,00
연령 (29세 이하 기준)	30대	0,01	연령 * 연도 터미	30대	0,00
	40대	0,05***		40대	-0,01
	50대	0,04***		50대	0,00
	60세 이상	0,01		60세 이상	0,05**
학력 (중졸 이하 기준)	고졸	0,01	학력 * 연도 터미	고졸	0,01
	전문대졸	0,05***		전문대졸	0,01
	대졸 이상	0,07***		대졸 이상	0,01
정규직	정규직	-0,01	정규직*연도 터미	정규직	-0,02

<표 계속>

중속변수: 교육훈련 참여 여부

통제 변수		Coef.	독립 변수		Coef.
사업체 규모 (4인 이하 기준)	5~9인	0.05***	사업체 규모 * 연도 터미	5~9인	0.01
	10~29인	0.12***		10~29인	0.04**
	30~99인	0.21***		30~99인	0.02
	100~299인	0.28***		100~299인	0.04*
	300인 이상	0.37***		300인 이상	0.21***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가입	0.10***	고용보험 가입 * 연도 터미	가입	0.03***
	가입 제외	0.37***		가입 제외	-0.08***
산업 (기타 산업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0.07*	산업 * 연도 터미	농업, 임업 및 어업	-0.01
	제조업	-0.05**		제조업	-0.01
	건설업	-0.08***		건설업	-0.02
	도매 및 소매업	-0.04		도매 및 소매업	-0.03
	운수업	0.08***		운수업	-0.01
	숙박 및 음식점업	-0.05*		숙박 및 음식점업	-0.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1
	금융 및 보험업	0.31***		금융 및 보험업	0.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12***
	교육 서비스업	0.05*		교육 서비스업	0.0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07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6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4

〈표 계속〉


이슈 분석

종속변수: 교육훈련 참여 여부					
통제 변수		Coef.	독립 변수		Coef.
직종 (단순노무직 기준)	관리자	0.06	직업 * 연도 터미	관리자	-0.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
	사무 종사자	0.03		사무 종사자	0.00
	서비스 종사자	0.07		서비스 종사자	0.03
	판매 종사자	0.12		판매 종사자	0.0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0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0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0.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0.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
상수					0.00
Number of obs					50,913
Prob > F					0.0000
Adj R-squared					0.2919

주: 1) 기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성별: 여자, 연령: 29세 이하, 학력: 중졸 이하,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체 규모: 4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산업별: 기타 산업, 직업별: 단순노무직.

2) 기타 산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분야

3) *** p<0.001, ** p<0.01, * p<0.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